

햄릿과 나

송미경 글 | 모예진 그림

*이 독서 수업 계획서는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학년: 3~4학년 사회 가족의 형태와 역할 변화
5~6학년 국어 대화와 공감 /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주 제: 가족, 내 감정 돌아보기

분 야: 한국 창작동화, 생활동화

활 용: 연극, 낭독, 마음을 전하는 글 쓰기

주 제 어: #입양 #반려동물 #가족 #우정

작 성: 상주 상영초등학교 오은경 선생님

■ 책의 내용

겨울날 화단에 버려진 햄스터에게 ‘용감한 햄릿’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가족이 되기로 한 주인공 미유. 미유는 얼마 뒤, 자신이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엄마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미유는 혼자 잠들지 못하는 밤이 늘어 갑니다. 그럴 때마다 미유는 햄릿에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의 의미를 일깨우고, 헤어짐을 받아들일 힘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 동화 작가, 초등학교 교사 김선정 선생님의 책 소개

이 책은 입양아인 미유가 핏줄이 다른 이들과 가족이 되어 가는 성장 이야기이기도 하고 유기 동물인 햄릿의 부모가 되었다가 헤어지는 상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성장한다는 것은 곧 상처받는다라는 것이다. 아픈 상처가 경험이 되어 비슷한 일을 겪는 타인을 이해하고 어리석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성장하기 때문이다. 상처가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먼저 그 상처를 겪은 현명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유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 처음 미유를 봤을 때부터 내 아기라는 걸 알아본 엄마는 미유가 울 때마다 깊이 잠들 수 있도록 안아 준다. 아빠는 말없이 햄릿을 돌봐 주고 언니는 미유와 함께 울고 웃으며 점점 닮아 간다. 미유와 가장 닮은 어른인 이모는 미유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친구 혜주와 태리는 먼저 햄스터를 잃어 본 경험을 들려주고 아픈 햄릿을 보고 슬퍼해 준다. 할머니는 헤어지지 않는 만남은 세상에 없다는 담담한 진실을 슬퍼하는 손녀에게 깨우쳐 준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타인이 미유 주위를 꼼꼼히 감싸고 있어서 어쩌면 슬프고 마음 아픈 이 책을 따뜻한 기분으로 읽을 수 있다.

■ 학습 목표

햄릿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함께 읽어 봅니다. 미유가 던지는 질문에 햄릿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 생각해 보며 미유와 햄릿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을까를 그려 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에 좀 더 깊이 공감하는 연습을 해 보고 자신 역시 마음속에 어떤 말을 담아 두고 지내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미유의 가족과 친구, 햄릿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봅니다.

단계	활동 내용	차시
책 읽기 전	-햄릿은 누구인가요? -'갈등'해 본 적 있나요?	1차시
책 읽기	-등장인물에 공감하며 읽기 -햄릿의 대답 적으면서 책 읽기 -햄릿의 말 들어 보기	2차시
책 읽은 후	-미유의 울타리 만들기 -햄릿과 나는 어떤 사이? -우리 가족에게 편지 쓰기	2차시



책 읽기 전

1. 햄릿은 누구일까요?

책표지를 보면 햄릿이 햄스터의 이름인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햄릿’은 영국 작가 셰익스피어가 쓴 비극적인 작품의 주인공 이름이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유명한 대사를 한 사람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참고 자료: 그림자 동화-셰익스피어의 햄릿 <https://youtu.be/5CXUbNrzcuo>

2. ‘갈등’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누구나 햄릿의 대사처럼 갈등 상황에 놓여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갈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어렵듯이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담긴 단어의 뜻을 함께 읽어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갈등⁰³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요구나 욕구, 기회 또는 목표에 직면하였을 때, 선택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함. 또는 그런 상태.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책 읽기

1. 본문 14쪽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임명장을 만들어 칠판에 붙여 두고, 학생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듯이 크게 읽어 줍니다.

“임명장! 햄릿을 우리 집의 용감한 여왕으로 임명합니다. 이채은, 이미유.”
(『햄릿과 나』, 14쪽)



2. 이제부터는 햄릿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읽어 봅니다.

아래는 책의 주요 장면에 등장하는 미유의 질문입니다. 책 읽는 분량이나 속도는 학급이나 학생의 읽기 속도에 따릅니다. 자기 속도에 맞추어 읽다가 아래 질문들이 등장하면 ‘자신이 햄릿이라면 미유에게 어떤 말을 해 줄지’ 생각한 뒤, 떠오르는 말을 접착 메모지에 적도록 합니다. 책을 읽다가 대답을 바꾸어도 좋습니다. 미유와 햄릿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A4 크기의 종이를 한 면이 셋으로 나뉘도록 병풍접기한 뒤, 각 칸에 질문 하나를 적고 대답 메모지를 그 아래에 순서대로 붙이게 합니다.

미유의 질문
① 햄릿, 넌 어디에서 왔니?(18쪽)
② 여왕님, 엄마는 우리가 여전히 가족이라고 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꾸 속이 상해요.(32쪽)
③ 햄릿, 너에게도 비밀이 있니?(40쪽)
④ 햄릿, 정말 떠나려고 한 거야? 너에게 물어보지 않고 널 데려와서 미안해.(59쪽)
⑤ 햄릿, 병원에 가지 말아야 했을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76쪽)
⑥ 햄릿, 넌 엄마를 만나면 무얼 하며 놀 거야?(96쪽)

3. 책을 끝까지 읽은 뒤, 각자 적은 햄릿의 말을 발표합니다.

모두가 발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섯 개의 질문을 적은 질문지를 접어서 통에 넣은 뒤 그중 한 장을 뽑아 햄릿의 대답을 말해 봅니다. 질문지를 담은 통을 가운데 두고 둥글게 둘러앉은 뒤, 발표자가 가운데에 서서 햄릿의 대답을 말하도록 하면 조금 더 진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친구들의 의견을 살펴봅니다.

교사는 커다란 종이를 여섯 칸으로 나누어 질문들을 적은 뒤, 칠판이나 게시판에 붙입니다. 한 번 이상 햄릿의 대답을 발표했다면, 이제 커다란 질문 종이에 자신이 적은 대답들을 붙여 봅니다. 친구들의 대답이 모두 모이면 다함께 살펴봅니다. 인상적인 대답이 있으면 같이 읽어 보아도 좋습니다.

1. 미유의 울타리 만들기

미유에게는 마음의 대화를 나눈 햄릿도 있지만 가족과 친구들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언니, 이모, 친구 태리와 혜주는 미유에게 다정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미유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지만, 꼭 말하고 싶었던 마음 속 말이 있다면 무엇이였을까요? 일곱 명이 한 모듬이 되어, 각 인물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선택합니다. 미유가 된 아이는 가운데에 앉고, 나머지 여섯 명은 미유 주위에 울타리를 만들 듯 둥글게 손을 잡고 섭니다. 한 명씩 자신이 뽑은 인물이 미유에게 하고 싶었을 말을 생각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미유의 소감을 듣고, 미유도 인물들과 손을 잡고 울타리의 한 부분을 이루도록 합니다. 다른 모듬의 활동이 모두 끝나면, 다함께 손을 잡고 큰 울타리를 만들어 앉습니다.

2. 햄릿과 나는 어떤 사이?

둥글게 앉은 학생들에게 “햄릿과 나는 _____ 사이”라고 적은 종이를 나눠 주고, 빈 칸을 채우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돌아가면서 자신이 적은 글을 읽고, 그렇게 적은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봅니다.

3. 우리 가족에게 편지 쓰기

가족이란 어떤 것일까요?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편지를 써 봅니다. 『햄릿과 나』 책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편지를 써 봅시다.

